

업계뉴스

■ 음식물찌꺼기사료화 연구회

창립총회, 유동준 회장 선출



유 동 준 회장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는 연구회가 지난 '97년 12월 24일 농업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대강당에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료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창립된 음식물찌꺼기사료화 연구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에 유동준 단미사료협회장을 선출했다. 유동준 음식물찌꺼기사료화 연구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는 임무는 농림부 소관이고 퇴비화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라 서로 업무를 떠 맡기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사료화 시킬수 있는 자원이며, 연간 10억달러 이상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의 일부를 사료화 시키는 방안에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축산기술연구소

자돈·비육돈 사양관리 비디오 배부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정선부)는 “자돈·비육돈

사양관리”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 양돈단지와 행정기관, 관련단체, 학계에 배부했다. 자돈과 비육돈의 사양관리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된 이 비디오 구입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축산기술연구소는 앞으로 4편의 영상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외화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0593-854-4286

■ 수의과학연구소

수의사시험 1월 23일 실시

제42회 수의사 국가시험이 1월 23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과천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 수의사 국가시험 주관기관인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재진)에 따르면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의과학연구소 안전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0343-67-1835)

■ 낙농육우협회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활동자료집 발간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축산물 가공식품 농림부 일원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축산인과 관련기관, 정당,

국회의원, 언론에 대한 활동사항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추진일지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 속기록과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 전문 및 관련기사가 수록됐다.

■ 한국돼지인공수정사업소 협의회

정기총회, 정액가격 인상보류 결정

한국돼지인공수정사업소 협의회는 지난 '97년 12월 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김해A.I센타의 박삼곤 협의회 회장등 11개 회원 A.I센타가 참석한 가운데 '97년 정기총회를 갖고 "정액증명서 발급에 대한 협의사항" 보고 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정액가격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정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병 형태의 정액 용기를 튜브 형태의 용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튜브 형태의 용기 생산을 위하여 국내 생산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액제조 원료비 상승과 사료비 인상, 정액 운송에 따른 차량비 인상 등으로 정액 1두분당 약 2,000원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나, 양돈농가의 사료비 인상, 돼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양돈경기가 호전되는 시기까지 정액가격 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의한다고 그 의도를 밝혔다.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연구결과 발표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원장 김길환)은 지난 '97년 12월 17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농어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금 연구사업과 관련한 '97연구결과 발표 및 평가회를 열었다.

공인 시험기관 인증 획득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통상부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한식연은 지난 '94년부터 식품 수출때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는 영양표시 분석지원을 시작, 지금까지 6백60여개 품목에 대해 지원해 왔다.

■ 천광산업

사료업계 처음으로 화의신청

사료업체로는 처음으로 천광산업(대표 김만호)이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천광산업을 비롯 사료업체들은 최근 환율상승에 따라 원료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다, 당밀, 소맥피 등 부원료 가격도 이달 들어 70%이상 인상돼 원가부담이 급증하면서 심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업체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경우 사료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광사료의 부도는 이같은 사료업체의 경영난이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천광사료는 지난 66년 설립되었으며, 88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견업체다.

■ (주)하이미트

강원도 원주에 물류센터 4월 착공예정

(주)하이미트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올해 4월중 원주 농공단지내 총 1만1천3백평의 부지에 강원도 생산자조합센터, 21C축산물유통 정보센터 등이 들어설 하이미트 물류도매·판매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식육컨디션센터 기능을 하게 될 하이미트 물류센터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비롯, 식육교실, 실험실습실, 회의장 등을 개설,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키로 했다. 오는 '99년 상반기중 이 센터가 완공되면 강원도는

물론 국내 식육유통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DI유통

돈육 전·후지 80톤 러시아 수출

식육유통업체인 DI유통(대표 김경국)은 러시아에 돼지고기 전·후지 80톤을 수출하기로 하고 구정 전 선적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식육업계에서는 러시아 식육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위생조건, 대금결제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DI유통은 이와 관련, 러시아측 수입선과 국제 공인 식품 검수기관인 SS사의 품질보증을 조건으로 수출을 성사시켰다. 이번에 선적되는 전·후지 80톤은 대구축협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부산항에서 선적,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모스크바로 운반될 계획이며, 수출단가는 전·후지 모두 kg당 2천3백원으로, 일본시장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김경국 사장은 설명했다.

■ 연합축산사

사무실 이전

연합축산(대표:정용운)은 지난 1월10일 사세확장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과 사무실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777번지로 이전하였다. 전화번호는 전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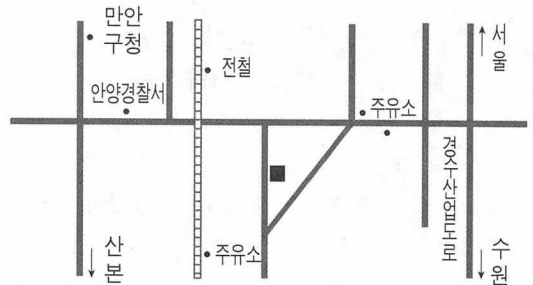
■ 강화축산사

전 강화축산(대표:고규락)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3-11로 주소를 옮

기고, '강화축산'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새로운 전화번호는 305-2548, 374-7013이며, FAX는 308-1030이다.

■ (주)태경

사무실 이전



(주)태경(대표 김경한)은 격변하는 기업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서울 사무실을 안양 본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1월 30일부터 새로운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20-10번지이며, 전화는 0343-67-6767이고, FAX는 0343-68-1502, 0343-681503로 바뀌었다.

개인별 직통전화 : 02-3705-42

■ 민우동물약품상사

사무실 이전

민우동물약품상사는 사세확장에 따라 지난 1월 14일부터 사무실을 새로 이전하였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87-3

□전화 : 0343)58-4257, 4258

□FAX : 0343)58-4250 **養豚**

